조선인민군 창건 70돐 기념 특집

주체91(2002)년 4월 25일

백전백승의 70년

조선인민군창건 70돌

조선인민은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위용떨치는 조선인민군을 혁명무력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크나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조선인민군은 70년의 자랑찬 로정을 걸어왔다.

백전백승으로 빛나는 이 건군사는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해 바치신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로고와 **김정일**최고사령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다.

김일성주석은 조선인민군의 창건자이시다.

조국광복을 위한 길에 위대한 생애를 바치신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두 자루의 권총을 품에 안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주석께서는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을 찾는 유일한 길은 무장투쟁이라고 하시면서 혁명무력을 창건할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몸소 사선을 헤치시면서 무장대오의 골간을 키워 내시였으며 적의 무기를 빼앗아 무장을 갖추었다.

주체21(1932)년 4월 25일, 드디여 조선인민의 진정한 혁명무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을 선포하시였다.

주석께서는 국가적인 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었지만 조선인민혁명군을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령군술로 이끄시여 일제침략자들의 수적기술적우세를 타승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주석께서는 광복된 조국에서 정규적혁명무력을 건설하는 것을 선차적인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조선인민혁명군을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일제를 대신하여 조선의 남쪽땅을 강점한 미제가 청소한 공화국을 반대하여 전쟁의 불을 질렀던 준엄한 시기에 주석께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중책을 지니시고 독창적인 전법들을 창조하시여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시였다.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조선인민군은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 놓았다.

조선인민군은 두차례의 혁명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김일성**주석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계승해 나가시는 **김정일**령도자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심으로써 더욱 강화발전되었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김일성**주석과 함께 주체적인 군사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수많은 인민군부대들을 시찰하시면서 조선인민군을 ≪일당백≫의 강군으로 키우시여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 버리도록 하시였다.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제국주의자들이 악랄하게 책동하여 온 최근년간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독창적인 선군혁명로선을 제시하시고 군대와 인민을 령도하여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그리고 인민군군인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준엄한 시련을 앞장에서 열어 나가도록 하시였다.

조선인민군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70년의 건군사를 수령결사옹위의 자랑스러운 력사로,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지켜 온 빛나는 장정으로 수 놓아 왔다.

조선인민은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위용떨치는 조선인민군을 혁명무력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크나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PDF잡지 ≪조선≫ 주체91(2002) 4월호

조선인민군창건 70돐 기념

백전백승의 70년
선군영도로 역사의 기적을 창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공위성발사
조미 관계 10년을 통해 본 한(조선)반도의 통일정세

선군영도로 역사의 기적을 창조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불멸의 혁명실록을 엮어오신 지난 6년은 선군영도로 빛나는 업적을 창조한 승리의 노정이였다.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자들의 힘과 힘의 대결이다. 강대한 군력이 없이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존엄, 자주권을 지켜낼 수 없다. 영도자님께서는 독창적인 군중시노선을 내놓으시고 선군영도로 조선인민군을 어떤 대적도 단매에 거꾸러뜨릴 수 있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시였으며 그 위력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위협을 단호히 짓부수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무엇보다 영도자님께서는 동유럽 사회주의가 붕괴된 이후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 있는 정세에 대처하여 군사중시노선을 제시하시고 군사선행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독창적인 사상, 총대위에 사회주의가 있고 평화가 있다는 사상, 다시 말해서 마치와 낫위에 총대를 놓을데 관한 군사중시노선, 총대중시사상을 제시하시었다.

선군영도는 말그대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군대를 중시하고 군대를 강화하는데 우선적 힘을 넣는 탁월하고 독창적인 영도방식이다. 즉 선군영도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영도방식이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언제나 인민군대를 중시하고 혁명무력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면서 전체 민중이 군사에 관심을 돌리고 군대를 성심성의로 도와나서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또한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선군정치를 기본정치방식으로, 만능의 보검으로 거머쥐고 나가시었다. 선군정치는 영도자님께서 역사상 처음으로 밝히신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역사의 준엄한 난국을 헤쳐가던 ≪고난의 행군≫시기 인민군 군인들 속에서 높이 발휘된 혁명적 군인정신을 전당과 온 사회가 따라배우도록 하시었으며 온 나라에 혁명적 군인정신이 차넘치고 군대의 위력이 더욱 강화되도록 하시었다.

그분께서는 선군정치를 만능보검으로 거머쥐시고 사회주의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전환적 국면을 마련하시었으며 역사에 유례없는 난국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 나가도록 하시었다. 하기에 세계 진보적 인사들은 영도자님의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강경보루를 낳은 일거양득, 일석다조의 만능의 정치≫,≪사회주의위업의 승리의 기치≫라고 경탄하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또한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우시고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시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군대의 선도적 역할을 높이도록 하시었다.

영도자님께서는 주체83(1994)년 8월부터 주체88(1999)년 5월까지 무려 4백30여개소의 군부대, 구분대를 찾으시었다. 그 길은 무려 12만350여리나 된다. 이 기간에 영도자님께서는 철령을 6차례나 넘으시었고 쪽잠으로 피로를 푸시고 주먹밥으로 끼니를 드시었다.

영도자님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을 현지시찰하실 때마다 먼저 부대들에 모셔진 어버이수령님의 동상과 현지교시판, 현지말씀판, 현지시찰사적비, 사상교양실들을 돌아보시고 수령님의 거룩한 현지지도 발자취가 어리어 있는 노정을 따라 걸으시면서 수령님의 현지지도사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할데 관해 세심히 가르치시었다. 이와 함께 영도자님께서는 군인들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힘있게 벌이고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활동을 활발히 벌이도록 하시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인민군대를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자로 교양, 육성하도록 하시었다.

이와 함께 영도자님께서는 전군이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숨쉬고 행동하며 당의 영도를 충실히 받들어 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영도자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이북의 인민군대는 자기 수령, 자기 최고사령관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 하고 전군이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억세게 자라나게 되었다.

위대한 영도자님의 끊임없는 전선시찰과 영도로 이북의 인민군대는 그 어떤 강적도 단매에 거꾸러뜨릴 수 있는 현대적인 방어수단과 공격수단을 다 갖춘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나게 되었다. 오늘 세계는 이북의 무력을 가리켜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무적의 군대≫,≪필승불패의 세계적인 강군≫이라고 감탄하고 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면서 혁명과 건설에서 군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여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가속화해 나가도록 이끄시었다.

영도자님께서는 인민군대가 사회주의건설의 제일 긴요하고도 어렵고 힘든 부문들을 맡아 새로운 기적과 영웅적 위훈을 창조하도록 하시었다. 영도자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인민군대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중요 발전소건설과 토지정리 등 대자연개조사업 그리고 인민경제의 중요한 모퉁이들을 맡아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또한 전당과 전민이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 배워 남들 같으면 열백번 쓰러졌을 그 어려운 ≪고난의 행군≫,≪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게 하시었으며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시는 탁월한 영도로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고양을 일으키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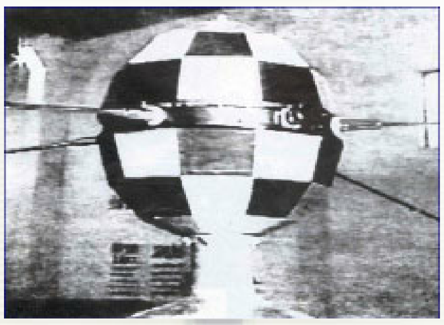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처럼 ≪고난의 행군≫시기에 안변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한 군인들은 형언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구호를 들고 혁명적 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함으로써 거창한 자연개조공사를 빛나게 수행하는 위훈을 떨치었다. 이 과정에 군인들이 발휘한 혁명적 군인정신은 그 어떤 악조건에서도 당이 맡겨준 전투적 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는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이며 아무리 어려운 과제도 자체의 힘으로 해내고야 마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이며 당과 혁명, 조국과 민중을 위해서는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자기희생정신, 영웅적 투쟁정신이였다.

영도자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시대의 혁명정신으로 창조된 혁명적 군인정신은 전민의 생활기풍, 투쟁기풍으로 되어 이북에서는 그 어려운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세계를 경탄시키는 기적들이 창조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창조된 빛나는 혁명실록은 민족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기성철 － 구국전선 제439호
주체90, 4월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공위성발사



지난 8월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나라에서 처음되는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하였다.

그때부터 오늘까지사이에 공화국측에서는 일본매스콤에 소개 안된 위성발사에 관한 수많은 정보, 자료들을 공개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할만한것은 위성발사에 직접 참여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증언, 담화들이다.

아래에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미국, 남조선 등의 관련자료에 기초하여 인공지구위성발사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정리한 내용을 소개한다.

－무수단리의 우주로케트기지

조선북부의 공업도시－김책시에서 동북동에 60키로메터쯤 떨어진곳에 위치하는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는 조선동해와 면한 고요한 해안가이다. 산과 바다에 돌러싸인 무수단리는 우주로케트를 발사하는데 매우 적합한 장소이다. 여기에는 발사대, 지령소, 관측소 등이 늘어서있다. 또한 평양시, 황해북도를 비롯한 몇군데에도 우주로케트의 관측소가 설치되였다.

미국은 이미 자기의 정찰위성에서 공화국의 우주로케트발사기지를 탐지하고있었다는것이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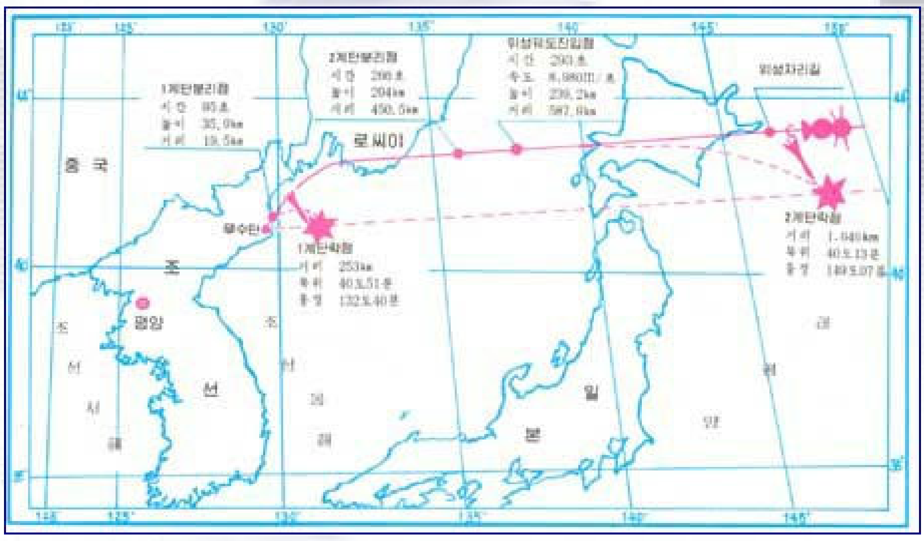
8월 31일 오후 12시 7분,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가 무수단리에서 발사되였다. 당초 발사시간은 관측에 유리한 저녁시간에 설정되여있었다. 그런데 발사당일날인 31일의 기상예보를 보면 낮시간에는 개이고 고공풍이 없지만 저녁녘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내릴것이라는것이였다. 발사준비가 이미 빈틈없이 되여있었고 낮에 발사하더라도 얼마든지 위성을 감시할수 있었기때문에 시간을 앞당겨 위성을 낮에 쏴올렸던것이다.

굉음을 울리며 날아오르는 로케트를 지켜보는 권동화박사, 한해철박사를 비롯한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발사성공을 확신하면서 크나큰 기쁨에 휩싸였다.

위성운반로케트는 최신식인 3계단식이며 제1계단과 제2계단은 액체연료발동기(다섯종류의 성분을 포함하는 혼합연료), 제3계단은 고체연료를 가진 구형발동기와 제어용 소형발동기(3기)를 싣고있었다. 고성능의 액체로케트(액체연료와 산화제)는 우주로케트개발의 주류이다. 제1계단로케트에는 조종장치가, 제2계단로케트에는 가속기, 조종장치, 콤퓨터 등의 관성유도장치, 무선자폭장치가 설치되였다.

－발사방향의 설정

일반적으로 우주로케트의 발사는 지구의 자전을 리용하여 동쪽을 향하여 정한다. 지구의 자전속도는 적도우의 지표면에서 시속 1670키로메터(초속 465메터)이다. 적도에서 진동으로 로케트를 쏘아올리면 발사가속도를 6%쯤 더 얻을수 있다. 때문에 로케트를 발사하는데서 가장 리상적인 지점은 적도의 바로우인것이다.



이번에 설정한 발사 방위와 방향은 과학기술적조건을 면밀이 분석한 토대우에서 국제법에 기초하여 주변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최대한 존중한 결과이다.

가장 리상적인 우주로케트의 발사방향각도는 방위 90도인 진동이지만 그렇게 되면 일본령토상공을 경유하고 분리된 제2계단이 일본령해 가까운곳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기에 보다 안전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사방위를 86도로 수정하고 조선동해를 횡단하여 쯔가루해협의 상공을 넘어 태평양의 공해상을 날아가도록 하였다. 만일 로케트가 비행도중에 예정된 자리에서 탈선되는 경우에도 안전지대에로 유도하여 자체폭파할수 있는 장치가 준비되여있었다.

1계단은 발사후 95초만에 분리되여 발사장으로부터 253키로메터 떨어진 북위 40도 51분, 동경 132도 40분의 조선동해 공해상에 떨어졌다. 2계단은 144초만에 머리부류선체를 활개하고 266초만에 분리되여 발사장으로부터 거리 1,646키로메터인 북위 40도 13분, 동경 149도 07분의 태평양공해상에 떨어졌다. 3계단은 2계단이 분리된후 27초만에(발사 293초후, 12시 11분 53초) 제1우주속도(초속 7.8키로메터)를 넘어 초속 8.98키로메터의 속도로 위성본체를 자기 궤도에 진입시켰다.

우주로케트와 탄도미싸일의 궤도는 서로 차이난다. 우주로케트는 3계단발동기에 점화하는것과 동시에 지구겉면과 수평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궤도를 돈다. 그러나 탄도미싸일경우는 마지막구간에서 지구수평면에 대하여 40~45도의 자세로 대기권에 재돌입한다.

－순회궤도를 돌다

현재 ≪광명성1호≫는 지구에서 근지점 218.82키로메터, 원지점 6978.2키로메터로 되는 타원형의 순회궤도로 지구를 돌고있다. 그 주기는 165분 6초, 하루에 지구를 약 8.7바퀴 돈다. 9월 13일 오전 8시 24분부터 11시 17사이에 100바퀴째를 돌고 공화국의 상공 220키로지점을 통과하여 하와이북부, 칠레, 아르헨띠나, 나미비아, 앙골라, 꽁고,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중국의 상공을 지났다.

10월 5일경에 다시 공화국의 상공을 지날 때 만일 밤하늘이 개였다면 위성을 육안으로 확인할수 있다고 한다. (1바퀴째－8월 31일 오후 3시 1분 조선남해, 7바퀴째－오전 10시 8분 남조선, 15바퀴째 9월 2일 오전 10시 54분 조선중부, 23바퀴째－9월 3일 오전 11시 43분 조선북부의 상공을 각각 통과)

≪광명성1호≫는 음악선률과 ≪주체조선≫이라는 모르스전신부호를 27메가헤르쯔로 지구상에 전송하고있다. 또한 위성에서는 온도와 압력, 전원상태 등의 탐측자료가 보내오고있다. 9월 7일 야밤, 텔레비아사히는 평양에서 엿들은 음악과 모르스신호소리를 방송하였다. 위성은 실험용이므로 태양전지를 쓰지않고 바테리를 싣고있다. 음악과 전신부호는 발사후 9일간으로 끊어졌으며 위성본체의 수명은 약 2년이다.

공화국에서는 9월 4일에 처음으로 위성발사성공을 공표하였다. 그것은 위성발사의 성공여부와 제반 측정자료를 수집 종합한 다음 심중하게 공개하는 원칙을 취하였기때문이다.

－80년대부터 본격적인 개발

일반적으로 인공지구위성의 발사에는 10여년의 세월과 정식발사를 앞두고 30번쯤의 시험발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공화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기상관측과 위성통신을 목적으로 한 우주시스템공학의 연구와 인공지구위성발사를 위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벌려왔다. 94년에 열린 인공지구위성의 원곽조종에 관한 국제심포즘에는 미국, 일본, 영국 등과 함께 우리 공화국도 참가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벌써 6년전에 ≪광명성1호≫본체와 운반로케트의 개발이 기본적으로 끝나고 90년대초에는 발사준비를 완료하고있었다. 그동안 국제정세의 격변과 **김일성**주석의 서거에 대한 국상기간(3년간)을 고려하여 발사시기를 기다리고있었으나 국경절 50돐을 축하하여 드디여 발사하기로 하였던것이다.

이번 발사목적은 ①인공위성의 정확한 궤도진입 ②다계단운반로케트의 구조공학적설계와 조종기술 완비 ③우주공간환경을 연구하고 우주공간환경속에서 전자장치들이 정확히 동작하는가를 검증 ④운반로케트와 위성의 관측체계를 완성하는데 있다.

발사가 성공됨으로써 인류공동의 우주평화리용의 한몫을 담당하였다. 동시에 국산의 기상위성, 통신위성, 자원탐사위성을 쏴올린것과 그로 하여 농업발전, 석유개발, 정보통신의 새 가능성을 열어나가게 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련속되는 이상기후를 관측하는데서도 기다리고기다린 인공위성발사였다.

98년 1월현재 세계의 인공지구위성수(과학, 실용, 군사)는 4939개를 넘으며 주 3번의 속도로 이 지구상 어딘가의 발사장에서 발사되고있다.

－세계에서 9번째가 되는 국산위성발사

공화국은 인공지구위성을 자체의 힘으로 발사한 9번째의 나라이다. 지금까지 ①구쏘련(57년 10월 스프토니크1호), ②미국(58년 1월 에크스프롤라호, 뉴피터C로케트), ③프랑스(65년 2월 아스테리크A호, 디아만A로케트), ④일본(70년 2월 오오스미, 람다4S형로케트), ⑤중국(70년 4월 동방홍, 장정1형로케트), ⑥영국(71년 10월 프로스페로위성, 호주에서 발사), ⑦인도(80년 로히니위성), ⑧이스라엘(88년)등에서 각각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리고있다.

공화국의 과학자들은 이번에 로케트추진발동기(액체연료발동기, 고체연료용구형발동기)와 조종씨스템, 쎈서, 연료와 금속, 비금속재료, 발사대설비, 조종기술, 다계단로케트의 분리기술에 이르는 모든것을 100% 자기 나라 기술로 만들어낸데 대하여 크나큰 긍지를 가지고있다. 특히 시발도 없이 단 한번의 발사로 성공시킨것은 특출한 일이라 할수 있다.

이 점에 대하여 로씨야우주국 미로크부국장은 ≪로케트기술 그자체는 대단히 높고 놀랄만한것이다. 우리에게는 아무 지원요청도 없었다.≫(이따르－따스통신 9월 5일)고 말하고있다. 남조선의 공학우주연구소의 유장수박사는 ≪≪북한≫의 위성, 로케트기술력이 세계 10위에 들어갈만하게 발전했다. 3계단식로케트는 가장 발전한 형태이며 쏘련의 스프토니크발사와 맞먹는 과학기술적충격이다. 제1계단이 동해에 떨어지고 제2계단이 태평양에 떨어졌다면 미싸일이 아니라 틀림없이 위성발사로케트이다.≫(중앙일보 9월 5일)라고 지적하였다. 남조선의 과학자들속에서는 지금 ≪북한우주개발의 중심인물, 천재우주과학자들≫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다고 한다. (한겨레인터네트 9월 12일)

또한 공화국이 자체의 힘으로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린데 대하여 로씨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란, 파키스탄, 꾸바, 웽그리아, 뻬루, 적도기네, 탄자니아 등 세계 각국의 저명인사들은 ≪세계의 중대 소식≫, ≪아세아의 자랑≫이라고 하면서 칭찬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있다.

조·미 관계 10년을 통해 본 한(조선)반도의 통일정세

(2) 사회주의혁명의 최대 시련기에 발휘한 북(조선)의 돌파력

지난 1980년대 내내 미국은 북(조선)의 정치협상 제의를 묵살하면서 봉쇄압박과 무력위협으로 대답하였다. 미국은 북(조선)이야말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타파·소멸해야 할 적대세력이라고 규정하였다. 한(조선)반도가 지구 위에서 미국의 핵공격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위태로운 타격지점으로 되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으며, 한(조선)반도를 가리켜 미국이 임의의 시각에 전면전을 일으킬 수 있는≪태평양의 화약고≫라고 불렀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한(조선)반도에서 핵공격의 격발장치에 손가락을 걸고 있었던 쪽은 제국주의세력이었다. 1999년 10월에 세상에 드러난 미국의 한(조선)반도 전쟁계획인≪작전계획 5027≫이 보여준 것처럼, 제국주의세력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나라를 한꺼번에 쓸어버릴 방대한 무력과 막강한 첨단무기를 동원할 수 있는 미증유의 전쟁수행력을 과시해왔다. 미국은 이처럼 한(조선)반도에서 전략적 공격을 퍼부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북(조선)이 자기에게 굴복하기를 바랐고 정치협상 제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지난 1980년대에 조·미 관계가 처해 있었던 정황이었다.

그런데 1990년대에 이르러 어떻게 해서 조·미 정치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세 차례의 정치적 합의를 내놓을 수 있었던가? 우리가 주시해야 할 사실은,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제국주의세력 사이에서 벌어진 힘의 대결에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제국주의세력의 일방적인 공세를 물리치고 힘을 겨루는 대등한 지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역사적 경험은 제국주의세력이 자기와 대등한 지위에 있지 못한 무력한 상대에 대해서는 절대로 정치협상을 벌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 10년 기간 중에 눈길을 끄는 것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 동안 조·미 사이에서 정치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거의 정체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되었던 까닭은 그 기간에 사회주의혁명역량의 최대 시련기인≪고난의 행군≫과≪사회주의 강행군≫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시련기에 처해 있을 때, 제국주의세력은 이미 이루어진 정치적 합의를 내던지고 종래의 적대·말살정책을 다시 꺼내어 휘두르면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을 타파·소멸하려고 하였다.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시련기에 들어서자 제국주의세력이 그 무렵까지 진행되고 있었던 정치협상을 중단하면서 고립·압살책동에 집중하였다는 사실은, 제국주의세력은 미약한 상대에게는 절대로 정치협상을 벌이지 않는다는 역사적 경험을 다시 입증하였다.

그렇다면 북(조선)은 제국주의세력이 정치협상을 중단하면서 집중시킨 고립·압살책동과 사회주의혁명의 최대 시련기를 무엇으로 돌파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된다.

1) 북(조선)은 군사력으로 돌파하였다.

북(조선)은 1998년 8월 31일에 인공위성체≪광명성 1호≫를 탑재한 3단계 우주발사체≪백두산 1호≫를 우주공간을 향해 발사하였다. 그 광경을 지켜본 제국주의세력은 경악하였고 종전처럼 적대·말살정책을 계속 고집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자기의 정책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우주발사체≪백두산 1호≫는 북(조선)이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하여 전쟁수행력을 마비시킬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엄청난 정치적 위력을 발휘하였다.

북(조선)의 이론에 의하면, 제국주의세력에 맞설 수 있는 힘은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는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사력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강대한 군사력을 보유한 제국주의세력에 맞서 싸우는 반제혁명에서 빈약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의 정치외교력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1993년 6월에 조·미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이나 1994년 10월에 조·미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것이나 2000년 10월에 조·미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모두 북(조선)이 미국에 대해서 군사력을 시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1993년의 조·미 공동선언 채택은 북(조선)이 미국의 태평양지역 전략거점들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기에 가능했으며, 1994년의 조·미 기본합의서 채택은 북(조선)이 핵무기 개발 능력을 과시하였기에 가능했으며, 2000년의 조·미 공동선언 채택은 우주발사체≪백두산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하고 있음을 암시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무력위협을 일삼고 있는 제국주의세력에 맞서 싸우려면 자기들도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북(조선)의 생각이었고, 북(조선)은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끝에 마침내 그 생각을 현실로 이루어냈던 것이다. 제국주의세력과 가장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는 사회주의혁명역량이 미국의 심장부를 한 방에 날려버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무장하였다는 사실은 제국주의세력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위협앞에서 제국주의세력은 더 이상 일방적인 공세를 취할 수 없게 되었으며 종래의 적대·말살정책을 거두어들이고 정치협상의 길로 끌려나오게 되었다.

북(조선)은 사회주의혁명의 최대 시련기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한 채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가역량을 총동원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그로써 난관과 역경을 정면돌파하고 제국주의세력과의 대결에서 전세를 역전시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바로 이러한 경험을 총화하여 군사를 중시하는 사상을 정립하였다. 이미 세상에 알려진 대로, 북(조선)은 자기의 사회주의혁명을 선군혁명이라고 부르며, 사회주의정치를 선군정치라고 부른다.

2) 북(조선)은 정치외교력으로 돌파하였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을 상대하여왔던 북(조선)의 정치외교전략을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적 외교전략, 선의에는 선의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처하는 외교전략, 그리고 한(조선)반도 주변 네 나라의 역량관계를 이용하는 외교전략이다.

외세의 의존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외세라는 개념은 북(조선)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뜻한다. 북(조선)의 외교전략은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성을 근본으로 삼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북(조선)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제전선에서 이탈하여 미국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을 때 수세에 몰리지 않았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통하여 북(조선)에게 압력을 가하려고 하였던 미국의 우회전략을 파탄시킬 수 있었다.

북(조선)은 교활한 제국주의세력이 선의로 위장하고 접근해올 때 방심하거나 속아넘어가지 않았다. 또한 북(조선)은 제국주의세력이 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면서 강경하게 나왔을 때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거나 적당히 타협하여 위기를 넘기려는 비굴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에는 전면전으로≫라는 반격구호로 받아치며 초강경으로 대응하였다.

북(조선)은 한(조선)반도 주변 네 나라의 역량관계를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내곤 하였다. 한(조선)반도에 대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이해관계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북(조선)의 생각이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들이 가장 중시하는 미·일 동맹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과 중·러 관계가 밀착되면서 반미공조관계를 맺는 것이다.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일본이 미·일 동맹관계에서 이탈하려는 경향과 중·러가 반미공조관계를 맺으려는 경향은 모두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는 문제에 결부되어 있는데, 동북아시아에서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는 문제나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억제하는 문제를 좌우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쪽은 북(조선)이라는 사실이다.

북(조선)이 만일 1998년의≪백두산 1호≫에 이어서≪백두산 2호≫를 발사하게 되면 일본도 그에 대응하여 중거리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보유하려 할 것이며, 그러한 추세는 미국의 안보우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전쟁수행력을 확보하려는 군국주의적 야심을 자극할 것이다. 일본이 독자적인 전쟁수행력을 확보하는 것은 미·일 동맹관계에 균열을 일으키면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에 치명타를 입히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미국이 미·일 동맹관계를 종전대로 원활하게 유지·관리하려면 북(조선)이≪백두산 2호≫를 발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조·미 정치협상에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이≪백두산 2호≫가 발사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2000년 10월에 조명록 특사를 워싱턴에 파견하여 미국이 두려워하는≪미사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고, 당시 미국 대통령 클린턴은 그 해결책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워싱턴에서 역사적인 조·미 공동성명이 채택될 수 있었고, 그 직후에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대통령의 북(조선) 공식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평양을 찾아갔으며,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실현되는 결정적인 단계에까지 근접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시하여야 할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수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획기적인 해결책을 이미 제시하였고, 클린턴 행정부가 그것에 동의한 바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조·미 정상회담을 열고 두 나라 정상이 합의하는 내용을 세상에 발표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클린턴에게 제시하였고 클린턴이 받아들인 획기적인 해결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해결책은 외부에 알려진 바 없지만, 그 동안 조·미 정치협상의 핵심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드러난다.

1. 북(조선)이≪백두산 2호≫의 발사를 중단하는 대신 미국은≪광명성 2호≫를 운반할 우주발사체를 대리발사해주는 책임을 맡는다. 대리발사의 책임이란 미국이 직접 발사해주든지 아니면 제3국이 발사할 때 미국은 자기에게 요구되는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조선)은≪강성대국 건설≫의 핵심사업인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계속하여 추진하여야 하므로≪광명성≫으로 이름을 붙인 인공위성체는 계속하여 개발하게 될 것이다.

2. 북(조선)은 우주발사체≪백두산≫의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한다. 우주발사체≪백두산≫의 탄두부에 인공위성체 대신에 핵탄두를 장착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된다. 그러므로 우주발사체≪백두산≫의 개발을 중단한다는 말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것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말은 조·미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추세에 따라 미군병력과 군사장비를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군사기지를 단계적으로 폐쇄해 가다가 한(조선)반도의 통일이 실현되기 직전에 철군을 완료하고 군사기지를 완전히 폐쇄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 조·미 두 나라는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한다.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말은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전환하고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미 국교수립은 북(조선)에 대한 미국의 적대·말살정책의 종말을 의미한다.

…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2001년 9월 18일